20일·28일 국회 본회의 '예산안·쌍특검' 신경전

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개최 합의…주요 쟁점 협상 본격 진행
오늘 본회의 노봉법·방송법 재표결…조희대 임명안 상정 미합의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0일과 28일 각각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됐으며, 28일 본회의는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 잠정적으로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강훈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20일까지 협의해서 20일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20일에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민주당의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원칙은 협의 처리로 하되, 의장에게 (협의 처리가 안되면) '20일은 반드시 (야당 자체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분명히 말했고 의장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일 또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 등 속칭 '쌍특검법' 단독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의장에게 쌍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특검법안은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0일과 28일에 다음 본회의가 잡혀 있어서 쌍특검법은 20일에 해도 늦지 않고 28일은 자동 상정이라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된 일정인 20일 정도에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3대 국정조사' 추진 계획에 대해선 "20일 또는 28일로 해서 12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쌍특검법안과 이태원참사특별법, 3대 국정조사 계획안은 12월 안에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각종 법안들도 8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8일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을 올릴지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는 같은 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할 것인지 내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고, 내일 오전까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중에 인사청문특위를 열어 심사보고서 채택은 하는데,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는 아직 우리 당에 보고가 안 돼서 의원총회에서 (청문특위) 보고를 들어보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회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 지지율 32%…2주만에 3%p 내려

NBS…국힘 34%·민주 31%
장관 총선출마 59% 부정평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만에 오차범위 안에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2%, '잘못하고 있다'는 60%였다.

직전인 2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3%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4%p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1%, 정의당 3%,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29%였다. 국민의힘은 2주 전 조사 때와 같았고 민주당은 4%p 올랐다.

내년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2%,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각각 집계됐다.

2주 전과 비교하면 정부·여당 지원론은 2%p 내렸고, 견제론은 3%p 올랐다. 현 정부의 주요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인식 32%, '부정적으로 본다'는 인식 59%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6.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국힘 혁신위 42일만에 조기 종료…인요한 "절반 성공"

'희생 혁신안' 지도부와 갈등
'주류 외면' 현실정치 벽 못넘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예정된 활동 종료 시점인 24일보다 보름가량 빠른 7일 활동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10월 26일 출범 이후 42일 만에 해산을 결정한 것이다.

'파란 눈의 혁신 집도의' 인요한 위원장이 이끈 혁신위는 출범 후 당내 비주류, 호남·청년 등 여당 지지 취약층 끌어안기에 나서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가장 힘을 줬던 '주류 희생' 요구는 관철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혁신위의 의욕과 이상은 넘쳤으나 주류의 외면에 현실 정치의 벽을 넘지 못한 '미완의 혁신'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합과 희생에 집중한 혁신위는 여러 혁신안을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고, 당 안팎의 호응도 상당했다. 그러나 혁신위는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희생' 안건으로 지도부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출범 초기부터 '영남 스타 험지 출마론'을 언급했던 인 위원장은 이 안건을 11월 초 권고안으로 내놓은 뒤 '대통령을 사랑하면 결단하라'와 같은 압박성 메시지를 잇달아 발신했다.

한 달 가까이 주류의 뚜렷한 응답이 없자 혁신위는 '권고안'을 정식 안건으로 격상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강경파 혁신위원들이 의결 요구 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혁신위 내부 혼란도 있었다. 인 위원장은 지도부가 희생 안건을 의결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는 요구도 내놨다.

그러나 김 대표가 2시간 만에 이를 단칼에 거절했고, 당내에서도 '인 위원장이 과도하다'는 불만 기류가 형성됐다.

지도부는 결국 혁신위의 주류 희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인 위원장은 전날 김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에 특별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동력을 잃은 혁신위는 7일 회의에서 조기 해산을 공식화했다.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뭘 원하는지 잘 파악해 우리가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며 혁신위가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고 자평했다.

주류 희생에 대한 지도부의 응답이 끝내 나오지 않아 혁신위가 '수술'을 완료하지 못했으나, 총선이 가까워지면 혁신위 요구대로 실제 '결단'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비주류측에서는 "이렇게 되면 당 지지율이 회복되기 어렵고 '김기현 체제'도 흔들릴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네덜란드 방문 반도체 동맹 구축"

대통령실 "반도체 대화체 신설"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11~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목표로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꼽았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네덜란드 첨단 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사슬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며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반도체 대화체 신설, 양해각서(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관련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다.

윤 대통령은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남동부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를 방문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